

# 담양군, 감염병관리 '국무총리 기관표창'

### 감염병 대응 담당부서 신설·선제적 대응 조치 독감 전 취약계층 집중대상 확대 등 높은 평가

담양군이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지자체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감염병 관리사업 정부포상은 감염병 관리 실적이 우수한 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으며 담양군이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군은 감염병대응 담당부서 신설과 보건소를 2개과 체제로 조직 개편해

감염병 전담부서 기능 강화, 코로나19의 지역 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조치를 철저히 했으며, 독감 예방접종대상을 전 취약계층과 5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관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강화된 행정명령 발령을 선제적으로 조치함은 물론 관내 요양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담양군이 감염



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군, 13개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야기 담은 '이야깃거리' 발간

곡성군이 지역 내 13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 '이야깃거리'를 발간했다. 책에는 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의 지명 유래를 비롯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들녘과 골짜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옛이야기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특산물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소개, 휴양마을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사진과 함께 제공된다. 이 책 한편으로 곡성 여행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책자는 잊혀져가는 전래자원을 기록해 후대에 전승하고, 농촌마을을 일상에 담긴 진솔한 삶의 모습과 숨겨진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농촌관광에 활용하고자 제작됐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지역민의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의미가 깊다. 고향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현실 속에 이



번 이야기거리 책자는 지역 전래자원 보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옛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가볍게 읽으면서 우리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다양하게 이해함으로써 실제 방문 시 더욱 깊이 있고 즐거운 경험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간된 책은 유관기관, 도서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곡성=양해영기자

## 수해 극복하고 결실 맺은 구례 오이·애호박 수확 박차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례 오이·애호박 농업인들이 4개월여 만에 수확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출하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구례읍 양정지구와 마산면 냉천, 사도, 광평지

### 내년 6월 중순까지 생산

구의 12ha의 하우스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농업인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한 결실이 이번 수확으로 이어지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구례군에서는 82농가 23.6ha의 시설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으며, 81농가 31.5ha의 하우스에서 애호박을 재배중이다. 작년에는 오이 3,700톤을 생산하여 80억 원, 애호박은 4,177톤을 생산하여 90억 원의 소득 올렸다. 구례 오이는 도매가 10kg에 17,000원, 애호박은 8kg에 23,000원

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울 가락공판장에 출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 등 대형 소비처의 판매 감소로 예년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구례오이는 기름진 구례들판 토양에서 파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재배된다. 밤낮의 온도차가 높고 지리산 자락의 맑은 물과 산야초를 이용하여 타 지역의 오이보다 탁월한 식감을 자랑한다. 구례 오이와 애호박은 11월 말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여 내년 6월 중순까지 생산된다. 구례=박진호기자

## 곡성군, 내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사전접수 채리 등 10개 품목별 온라인 교육 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

곡성군에서는 18일부터 31일까지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전접수를 받는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12개 과정 중 10개 과정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탈링크'를 활용해 진행하며, 나머지 2개 과정은 작목 특성을 고려하여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추후

코로나 19상황에 따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식량작물(옥수수, 콩), 채소(고추, 딸기), 과수(배, 체리, 단감, 사과, 매실), 도시농업(치유농업) 등 4개 분야 10개 과정이며, 내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곡성=양해영기자

## 나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

나주시가 농가 영농활동의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를 다소 변경한다. 18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변경·

시행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나주시 사업소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평균 0.8%' 수준으로 개정 후 '구입가격의 평균 0.6%'로 적용된다. 시는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

고자 법령기준에 정한 농기계임대료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 이내로 삭감해 임대료를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임대료 대비 인하 기준은 52종(50%), 동결은 25종(24%), 인상은 26종(25%), 신규는 1종(1%)이다. 변경된 임대료 세부 내역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은 규모나 보유 농



기계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이고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면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농기계 조작 요령을 충분히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농업기술센터, 전남 농촌진흥사업 대상

화순군이 2020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상을 수상해 시상금 6백만원과 상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매년 전라남도 21개 시군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기술보급 확산도, 농업인 만족도, 현장애로기술 발굴 등 3개 분야 112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화순군은 2018년 전라남도 농촌진

흥사업 최우수상, 2019년 농촌진흥청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에 이어 2020년 대상 수상으로 3년 연속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순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화순군 군정 목표인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께 드리는 연말선물

# “사진엽서집 나눔 이벤트”

올해 코로나19로 곡성을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곡성 사진엽서집을 보내드립니다.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해 주세요 (패키지 당 10장)

풍경편  
곡성 풍경사진 10장 묶음

장미편  
여름 장미사진 10장 묶음

이벤트 기간: 소진시까지  
배송: 무료배송  
발송일: 12월말 일괄 배송  
참여 방법: 곡성군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신청 접수중!  
[http://blog.naver.com/gokseong\\_love](http://blog.naver.com/gokseong_love)  
문의전화: 061) 360 - 8225 곡성군 스마트홍보팀